



머리글

정민하 율리오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예수님 사랑을 닮기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묵상하는 예수성심성월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인생의 용기와 희망을 되새겨보는 시기이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어떻게 체험하시나요? 저는 그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루카 복음의 되찾은 아들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곤 합니다.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졸랐던 아들이 결국은 방탕한 생활 끝에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너무 죄송한 나머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지난날을 참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가엾은 마음이 들었고 멀리서 달려가 아들을 안아주었다고 하지요. (루카 15,11-20)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저마다 굴곡과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잊고 싶은 실수와 잘못, 죄와 어둠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책과 절망감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하느님께서도 나약한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내어 다시 삶을 살아갈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 기회가 없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스스로 잘못과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용서는 비록 잘못된 이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물하는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며 그를 다시 살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죄의 결과는 참담합니다. 중대한 잘못과 범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피해자의 상처, 공동체의 슬픔이라는 숨 막히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되돌아온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도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치유하는 궁극적 힘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아들의 참회처럼 잘못된 당사자의 참회와 교정 기간도 필요하나 하느님의 사랑만이 죄인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누군가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마음도 치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탓과 허물을 질책하시기보다 ‘평화가 함께’ 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요한 20,19)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빵과 재물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용서와 사랑의 실천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실천함이 우리와 사회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 성심 성월을 보내며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6월 한 달 되시길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마태 6,4)

해밀 가족 야유회



4월 30(화) 해밀 가족 야유회가 있었습니다. 포천에 있는 해밀 가족의 묘원에 방문하여 함께 미사도 봉헌하고 근처에 있는 국립수목원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의 뜻으로 지어진 해밀의 이름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고, 여유로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도합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



5월 6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야외미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두산통일전망대에 들러 북한 지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실향민들의 애달픈 사연들의 전시품도 관람하였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 진사동 성당의 외형 모습과 함경남도 덕원의 베네딕도 수도원 대성전의 내부 모습을 토대로 꾸며진 참회와속죄의성당에서 현대일 루도 비코 신부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은 날씨에도 많은 분이 참석하시어, 피해자와 수용자·출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남부구치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모임) 성지순례



5월 11일(토) 서울남부구치소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모임)에서 새남터 성지순례가 있었습니다. 새남터는 4대 박해 동안 순교한 14분의 성직자 중 11분의 성직자가 순교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조선교구 제2대 교구장인 앵베르 범 라우렌시오 주교, 그리고 ‘기해일기’의 주인공인 현석문 가롤로 성인 등이 이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새남터를 둘러보며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희생하신 순교자들의 뜻을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분 한분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

전경애 스텔라 _ 서울동부구치소 봉사자

+ 주님께 영광

처음 구치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 약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당시 경비교도대란 곳에서 반주 봉사하시던 자매님으로부터 성가 봉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기간도 있었지만, 다시 서울동부구치소 남사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미사에 참석하신 수용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분 한분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들이라 생각하면 가엾은 마음이 들어 부디 이곳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발견하여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성가곡을 선정할 때 심혈을 기울입니다. 지하철을 내려 구치소로 향하는 길 옆 꽃밭에 갖가지 색깔로 어우러져 있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 십여 명의 봉사자들도 저마다의 색깔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저를 도구로 써주시는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몇몇 어르신들의 얼굴이 스쳐 갑니다.

필로메나 자매님, 두 베드로 형제님, 고마운 분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소서.

그리고 서울동부구치소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 봉사자들을 위해 빌어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기버하는 이들과 함께 기버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 12,15)

이교윤 시몬_ 신학대학 수련휴학(프락티쿰)

안녕하세요, 이교윤 시몬 신학생입니다. 반년 동안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속으로 신부님들을 따라다니며 서울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구치소와 교도소에 방문했습니다. 항상 검은색 계열의 어두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미사 시작 전에 제대를 차리는, 어두컴컴해 보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다면 거의 100퍼센트 저였을 것입니다.

1월에 지원하여 오긴 했지만, 사무실 제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곳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본부장님께서 소식지와 안내지, 그리고 교정 사목과 관련된 책 몇 권을 주셨습니다. 첫날이라 어색하면서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어정쩡한 의지의 저는 본부장님이 주신 소식지면 소식지, 책이면 책, 전부 읽어버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으니, 바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소식지의 제목인 ‘빛의 사람들’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수용자분들도 피해자분들도, 심지어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그 깊이는 다들지 몰라도 모두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식지에서는 이들 모두를 ‘빛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듯이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죽음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빛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뿐이지 않겠지요.

문득, 왜 우리 인간은 고통을 겪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까요. 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만 할까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만 할까요, 모든 게 잘 풀리는 누군가에 비해 홀로 답답하고 또 억울하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강제수용소에 갇혀 어린 시절을 보낸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의 자전 소설 『나이트』에는 한 어린 소년의 사형집행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 스프 두 그릇을 훔쳤다는 것이 이 어린 소년의 죄명이었습니다. 별별 떨며 교수대 위에 선 이 어린아이는 빠르게 형이 집행된 옆의 사형수들과 달리 몸이 너무나도 가벼워 한참을 바둥거리다 죽었습니다. 이때 그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유대인 수용자들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느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신을 찾는 듯합니다. “하느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왜 저를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시나요?”

하느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느님.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예전에 제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위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하느님은 우리에게

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한 고통까지만 주셔. 그리고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지.” 과연 진실로 그럴까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고통은 위에서가 아니라 아래에서, 본인의 발아래에서 옵니다. 전쟁, 살육, 범죄, 이 모든 비극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럼 신은, 하느님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어린 엘리 위젤은 본인보다 더 어린 소년이 매달린 교수대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이 어디 계시냐고? 저기 계시지 않는가, 저기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않은가?”

우리의 하느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 고통받을 때, 하느님이 바로 거기 계십니다. 고통받는 이와 함께 울고 또 슬퍼하십니다. 또 인간이 즐거워할 때, 하느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즐거워하는 이와 함께 웃어주십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스스로 다짐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어떤 판단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자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짐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 교정사목에서 5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용자분들을, 피해자 유가족분들을, 출소하신 형제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또 함께하셨을까?’

저의 복잡해진 머릿속은 이곳에서 반년 동안 만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조금씩 그 답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려 하시는 우리 위원회 신부님들과 수녀님, 직원분들, 봉사자분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수용자, 출소자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에서 바로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로마 12, 15 ‘그리스도인의 생활규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곳에 있던 반년간 이런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자신의 빛을 꺼트리지 않는 반딧불이 같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둠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함께 그들과 웃고 울며 자기 몸을 걱정적으로 빛내주신 또 다른 반딧불이 같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반딧불이 분들과 함께하며 보냈던 만남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저 또한 더 밝은 빛을 내뿜는 한 마리의 반딧불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채근담』에서 기억나는 구절 하나를 마지막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굶餓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겠지요. 여름을 싫어하는 저이지만 이제는 여름이 기다려지겠습니다. 우리 교정사목위원회 가족분들이 반딧불이 되어 무더위에 지친, 고통 속에 있는 형제자매분들이 웃을 수 있도록 여름밤을 아름답게 빛내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기다려주고 지켜준 가족에게도 힘이 되어 주고 싶습니다 (2)

정 OO_ 2024년 창업 대출자

345호에 이어>

▶ 앞으로 영업이 어떻게 되어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면 어떤 것일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요?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므로 배달 위주의 매장영업으로 시작하게 되겠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 수익을 꾸준히 모아 홀 매장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및 배달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배달보다는 홀 매출을 늘리는 것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매장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신규 고객 유입과 충성고객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수익 분기점이 도래할 때까지 운영자금 부족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장 영업시간을 늘리거나 샵인샵 메뉴를 확대해서 운영자금 부족의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을 증가시키려는 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데도 어려움이 발생한다면, 기쁨과희망은행과 상의하여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보려 합니다.

▶ 창업과 관련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자랑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신가요?

누구보다도 제 업에 대해서 진심이고 성실합니다. 성향 자체가 제 업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기존의 저에 안주하지 않고 탐색하고 개발하고 적용하며 목표한 바를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 앞으로의 영업에 대한 준비와 각오가 있다면?

정해진 예산 내에서 서두르지 않고 최적의 매장을 탐색하여 창업하려고 합니다. 창업하는 데 필요한 외식업 교육 및 행정적인 처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위해 정신적인 수양 및 육체적인 건강도 신경 쓰며 관리하고 있고 도움이 될 만한 책과 동영상도 학습하고 있습니다.

기쁨과희망은행에서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 어렵게 결정하고 흔쾌히 허락해 주신만큼 제가 좋은 본보기 및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 현재 업종에 대해 예비창업자에게 충고해준다면?

외식업은 충분한 경험과 지식, 정보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직이다 보니 마인드가 중요한 직무입니다. 고객을 대하고 고객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치지 않을 체력, 도전할 용기, 고객을 대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외식업 아르바이트를 통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인지도 꼭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외, 외식업에 수반되는 세무, 노무 등 행정적인 수반 업무와 손익계산, 마케팅, 고객 소통 등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공부도 충분히 하시고 창업을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 **업종과 관계없이 창업하고자 하는 주변의 예비창업자에게 꼭 해주고 싶은 주의사항이나 당부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적성에 맞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면 그 업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힘든데 괴롭기까지만 한 업종을 오래 할 수는 없죠. 물론, 그 업 또한 수익 창출을 위해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수익만 생각하고 업종을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본인이 잘하고 싶고 잘 해낼 수 있는 업인지, 본인에게 맞는 업인지를 무엇보다 가장 우선으로 두고 꼭 본인에게 되묻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적성에 맞지 않고 관심도 없는 업종을 선택하면 흥미는 잃고 돈만 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업 자체는 힘들지라도, 본인이 그 업을 즐겁게 해낼 수 있는 업인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업 자체에 자기 자신의 만족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서 이익 창출도 수반되어야 그 업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 **창업지원 제도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었을 텐데, 불만 사항과 개선 점을 제시한다면?**

절차에 대한 안내는 잘 되어 있지만, 진행일정표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진행 일정과 절차가 같이 안내된다면 창업지원을 준비할 때 그에 따른 창업 일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쁨과희망은행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예상했던 것보다 출소 이후 기본적인 생계와 사회로의 복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출소자 자활을 위해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셨을 겁니다. 믿고 지원해 주시는 마음을 꼭 가슴에 깊게 새기고 그 바람대로 꼭 성공사례가 되도록 멋지게 자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2024년 7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 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7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카카오톡 채널

● 행사 알릴

- 6월 3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가톨릭회관 3층
- 6월 4일(화)~5일(수)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1기 인성교육
- 6월 11일(화)~13일(목) 기쁨과희망은행 취·창업교육 / 서울구치소 남사
- 6월 15일(토)~16일(일) 정릉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전국 성심회(천주교 신자 교도관 모임) 총회 / 천안 상록리조트
- 6월 19일(수)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 센터
- 6월 23일(일)~24일(월) 기쁨과희망은행 운영위원 성지순례 / 전주 치명자산



● 새로운 교정사목 가족을 소개합니다. (24/4/16~5/15)

2024년 4월~5월에는 익명, 김정희 안나, 김지나 지나, 김희자 루갈다, 민순덕 레지나, 박은경, 배연자 소화데레사, 신철 안드레아, 위경숙 마리아고레띠, 이미경 레지나, 이성자 카타리나, 이지은, 임승빈 베네딕도, 지현숙 세실리아, 최미진 로즈마리, 홍수연 마틸다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김순옥 데레사, 김인옥 데레사, 김재숙, 박미혜 말가리다, 박현 비비안나님께서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후원 방법

1.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신청’을 클릭 및 오른쪽 ‘모바일 후원신청 QR코드’로 신청

2.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 전화로 신청하기 / 후원사업부 (02-921-5094)

3. 직접 은행에 신청하기

- 직접 자동이체 신청 시 후원사업부(02-921-5094)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여 7면 ‘후원 계좌’로 이체 등록
- 은행 방문 시 준비물(신분증, 도장, 통장) 지참 후 아래 계좌로 이체 신청



▶ 모바일 후원 신청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